



Market Index / 12일

코스피지수 ▲ 2238.38 +15.26

코스닥지수 ▲ 686.59 +4.25

유가(WTI, 달러) ▲ 49.94 +0.37

감골 평균경락가(5kg, 원) = 8.000

환율(원) 1USD 1199.63 100¥ 1091.81

살매 팔매 1158.37 1054.27

1EUR 1311.40 1260.24 1CN¥ 177.72 160.80

제주 표준지 공시지가 올해 4.44% 오른다

국토부 2020년 지가 공시... 3월 13일까지 이의신청 지난해 상승폭 9.74%보다 낮아... ㎡당 10만503원

올해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44%(전국 6.33)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1월 1일 기준, 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지난해의 9.74%보다 5.3%p 떨어지며 다소 안정적이다. 국토부는 제주지역 9868곳(2.0%)을 포함해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13일 공시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7.89%로 가장 높게 올랐다. 이어 ▷광주 7.6% ▷대구 6.8% ▷부산 6.2% ▷경기 5.79% ▷전남 5.49% ▷대전 5.33% ▷세종 5.05% ▷경북 4.84% ▷제주 4.44% ▷강원 4.39% ▷인천 4.27% ▷전북 4.06% ▷충북 3.78% ▷충남 2.88% ▷경남 2.38% ▷울산 1.76% 등의 순이다.

중간 위치를 차지한 제주 표준지 평균 공시지가는 ㎡당 10만503원(평당 약 33만원)으로 전국 평균 20만

3661원(약 67만원)보다 낮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92만2233원(평당 1954만원)으로 제주와는 59배 수준에 이른다. 2위 인천(59만2307원)과 10배가량의 가격차를 보였고, 그 뒤로 부산(58만3806원)과 대구(43만3530원) 등의 순을 보였다.

제주보다 토지가격이 낮은 지역은 충남(5만6307원), 경남(5만5890원), 충북(4만239원), 강원(3만467원), 전북(2만6851원), 경북(2만6255원), 전남(2만1323원) 등 7개 시·도다.

제주 표준지공시지가 가격대는 ▷10만원 미만 4706필지(47.7%) ▷10만원~100만원 미만 4568필지

(46.3%) ▷100만원~1000만원 미만 593필지(6.0%) ▷1000만원~2000만원 미만 1필지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했고 지난 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시지가를 결정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이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제주·서귀포시청 민원실에서 오는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이 기간에 이뤄진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평가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4월 10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백금탁기자

주간 재테크 핫 이슈 빠르게 회복하는 시장 대응전략

중국 경제지표 둔화 이용한 투자 성과

1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2100선을 이탈하기도 하였던 지수는 최근 중국시장이 개장하면서 반등에 성공,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하였다. 현재 사회적으로는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되고 있지만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은 빠르게 충격을 벗어나고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증시 역시 빠르게 회복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중국 내 확산속도가 둔해졌다는 소식과 함께 제품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 등 시장에 안도감을 줄 만한 뉴스가 지속되면서 미국 증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현재까지 회복이 과거 사스와 메르스에 대한 학습효과와 정책 지원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나타난 모습이며 향후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중국 경기 모델은 둔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중국에 대한 기대감 감소는 경제지표 악화로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미국 경기 회복으로 인한 신흥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였기에 미국 수요 회복이라는 점은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이나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에 증시에 대한 투자전략도 단기가 아닌 중기적 관점에

미국 수요 회복 여부 신흥국 증시 변동 좌우

"상승 탄력 둔화기간 적극적 진입 모색해야"

일단 증시 회복에 가장 큰 원동력을 제공한 것은 중국 주식시장이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았지만 주식시장은 사회 분위기와는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정부의 고강도 방역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상해 종합지수는 개장 후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고, 그 다음날에는 일시적으로 저점을 이탈하기도 하였지만 이후 회복을 하며 작년 2월에 형성되었던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서 단기 바닥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주식시장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중국 주식시장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선전 성분지수가 강세를 보였다. 선전 성분지수는 이전 고점대까지 3.2% 남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한국뿐만 아닌 중국 역시 IT를 중심으로 한 상승 기조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 글로벌 증시를 이끌어 왔던 IT 중심의 상승 기조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 될 수 있다.

서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최근 회복기간이 지나고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이 출현한다면 중기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가정 아래 적극적으로 진입시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2개월 정도 경제지표들이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현재 작년 말 1월 초까지 진행된 경기 회복 흐름과 함께 OECD 경기 선전지수가 회복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OECD 경기 선전지수가 평균적인 수준을 보인다고 한다면 이와 밀접한 연관을 보이는 한국 수출 사이클 역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중국 경제지표의 둔화를 이용한 투자전략이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현정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감골철 제주지역 고용률 69%대

통계청 월별 고용동향 분석

감골 출하 등 계절적 영향을 반영, 제주지역 고용률이 지난해 10월부터 69%대를 유지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0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1월 고용률은 69.2%(남자 75.2·여자 63.3, 전국 66.7)로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했다. 지난해 10~12월 도내 고용률은 모두 69.3%다.

1월 중 제주지역의 15~64세 고용률(OECD 비교 기준)도 73.4%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0.6%p 올랐다. 취업자는 38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5000명이 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21만명으로 1년 전에 견줘 2000명(1.1%), 여자는 17만9000명으로 1만2000명(7.4%) 각각 늘었다.

비임금근로자 13만5000명, 임금근로자는 25만4000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과 동일했고, 이 가운데 무급가족종사자가 3000명(10.9%) 증가했다. 자영업자는 3000명(-2.3%) 감소했다. 제주지역의 고용률은 높지만 일자리의 질적인 면에서는 개선이 시급하다.

제주지역 1월 실업률은 2.7%(전국 4.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했다. 실업자는 1만1000명으로 1년 전과 동일하다. 1월 경제활동참가율은 71.1%를 기록했다. 백금탁기자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극도로 침체하자 12일 중앙로상점가 청년몰을 찾아 고용을 돕고 시장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제주도 제공

행정-청년 상인, 협력방안 모색 '눈길'

도, 12일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찾아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생기발달'에서 제주청년센터, 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상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안으로 인한 소비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몰에 입주한 상인들의 고용을 돕고 시장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청년 상인의

자주적 노력과 함께 도 청년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계방안 및 청년센터의 역할을 논의했으며, 이번 간담회가 지속적인 소통체계로 구축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제주중앙로상점가 청년몰 '생기발달'은 지난해 12월 동문시장 인근 관음사 포교당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개장했으며 현재 식당, 공예품점 등 청년점포 16곳이 입주해 있다. 고대모기자

제주항공 '위기경영체제' 돌입... 무급휴가 확대

경영진은 임금 30% 반납

제주항공이 비상경영을 넘어 위기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석주 대표는 12일 사내 메일을 통해 "지난해부터 항공업계가 생존을 염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며 "위기대응을 위해 경영진이 먼저 임금의 30% 이상을 반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기존 승무원 대상으로 진행했던 무급휴가제도를 전직원 대상으로 확대한다"며 임직원들의 협조를 구했다.

제주항공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수익성 제고, 기단 규모의 조절, 투자 우선순위 재설정 등을 넘어선 그 이상의 대응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위기경영체제 돌입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위기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www.boraflower.com

전국 꽃배달 서비스

38년 전통 농장에서 직접재배 판매까지

제주에는 꽃보라화원이 책임집니다.

City Flower 전국 꽃배달 서비스
동·서양난, 축하, 근조, 각종 관엽식물, 꽃바구니, 꽃다발, 플라워박스, 꽃의 모든것

모든정원, 실내조경, 가정, 별장, 빌딩조경, 연못, 인공폭포, 잔디, 조경수 판매

☎ 746-0014, H·P 010-3693-5563

꽃보라화원
제주시 신광로8길 3
(제원사거리 위 국민은행 신제주지점 맞은편 골목)

농장 제주시 용담2동 721번지

전화1통화로 꽃배달 OK, 카드결제도 OK